최근 우리 공화국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볼수도, 상상할수도 없었던 멋쟁이창조물과 재부들이 그야말로 오늘과 래일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또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마련되고있다.

그것을 보며 세인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으니 그것은 이 땅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은 하나같이 황홀하고 마련되는 재부들은 어느것이나 훌륭하며 이루어지는 전변은 너무나 가슴벅차다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에 태여난 멋쟁이들에 깃든 하많은 사연들중의 일부를 여기에 전한다.

인민위한 모든것을 멋쟁이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인민들과 같이 좋은 인민은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 제일 멋진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이룩되는 창조물들은 그 어떤것이든 모두가 최상의것, 가장 훌륭한 멋쟁이로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물놀이장형성안을 보아주시던 때에 있은 일은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창조물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이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것인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주체101(2012)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만든 물

놀이장형성안을 올리면서 일군들은 형성안이 그만하면 세계적수준에서 완성되였다고 은근히 자부하고있었다.

그런데 물놀이장형성안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할 물미끄럼대수가 적다고, 몇개 더 마련하여 설치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세계에서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놀이장들에도 물미끄럼대를 많아서 5～7개정도 설치하는것이 보통상식으로 되고있었는데 그 당시 일군들이 올린 문수물놀이장형성안에 반영된 물미끄럼대수는 다른 나라의 물놀이장에 설치한것보다 훨씬 더 많은것으로 되여있었던것이다.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미끄럼대를 더 설치해주되 일반적인것이 아니라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은것으로 설치해주자고, 그러면 새것에 민감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무엇을 하나 마련해주어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멋쟁이를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문수물놀이장에는 14개나 되는 현대적인 물미끄럼대가 설치되게 되였다.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족점도 없는 멋쟁이문화정서생활기지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문수물놀이장의 요소요소마다에도 속속들이 깃들어있다.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찾아주신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공폭포에서 나는 물소리를 가늠해보시고 인민들이 물놀이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다고 하시며 물소리를 줄이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물놀이장의 파도도 실지 바다에서처럼 밀려들어왔다가 밀려나가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부족점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급강하물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가운데 물미끄럼대주로 마지막까지 미끄러져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며 그런

사람들이 옆으로 내려올수 있게 수평부분의 중간에 란간을 만들어주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자그마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마음쓰시며 바로잡아주시였다.

한밤중이나 이른새벽 그리고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도 몸소 지도해주신 형성안이 113건이나 되고 물놀이장모형사판을 집무실에 두고 보고 또 보시며 바치신 헌신의 낮과 밤은 또 그 얼마였던가.

실로 우리 인민을 위한 창조물은 사소한 부족점도 없는 만점짜리로 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극진한 사랑과 불면불휴의 로고에 떠받들려 문수물놀이장은 손색없는 멋쟁이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넘쳐나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그이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시는 문명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것인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각종 온천욕은 물론 스키와 승마까지 할수 있게 꾸려진 종합적이고 다기능화된 양덕온천문화휴

양지가 세계적인 휴양지로 훌륭하게 일떠서게 된것은 온천수가 유명해서도 아니고 지형지세가 좋아서도 아니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오랜 세월 땅속에서 속절없이 솟아나던 온천수가 인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바다로 출렁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온천문화휴양지를 마련해주시려 양덕군 온천지구를 찾아주시고 험한 산골길에서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에 옷자락을 다 적시며 휴양지건설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강력한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양덕온천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온천문화휴양지로 꾸리시기 위해 심신을 아낌없이 바치시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새로운 문화정서생활분야를 안겨주기 위해 건설하는 온천치료봉사기지이며 다기능화

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이라고,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며 원래 설계에는 예견되여있지 않았지만 실내온천장에 채광창을 더 낼데 대한 문제, 개별욕수조주변에 깔아놓은 인공잔디대신 나무바닥재로 마감할데 대한 문제, 야외온천장으로 가는 보행통로에 난방관을 묻고 온천퇴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이곳에 스키장과 승마공원을 잘 꾸리도록 하신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세상에 없는 휴양지로 일떠세워주시려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다.

야외온천장에 꾸려진 닭알삶는 터에 바쳐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주체107(2018)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건설총계획도앞에서 건물들의 여러가지 배치방안을 료해하신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건설하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것을 다 참고하여 건축미학적으로나 편리성

에 있어서 손색없이 건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다음 온천용출구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이제 멀지 않아 희한하게 꾸려질 온천문화휴양지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이윽토록 용출구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마실 물인데 우리가 먼저 맛보자고 하시며 제일먼저 고뿌를 받아드시였다.

물맛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80℃가 넘는 온천물에 몸소 손까지 잠그어보시고나서 온천물이 정말 뜨겁다고, 이 물온도면 닭알도 삶을수 있겠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벌써 몇번째로 하시는 닭알이야기로 하여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두달전 양덕땅을 처음으로 찾으신 그날에도 온천의 용출량과 온도를 알아보시다가 불쑥 80℃이면 닭알을 삶을수 있지 않는가고 물어보시고 어느 한 온천용출구앞에 이르시여서는 닭알을 이 온천의 용출구에 넣고 30분정도 있으면 반숙된다고 하는데

이런 온천이 바로 진짜 고온천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신 원수님이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께서 몸소 온천물의 온도를 가늠해보시며 또다시 닭알을 삶을수 있겠다고 기뻐하시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어이하여 거듭 닭알이야기를 하시는지 미처 알지 못하고있었다.

이윽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문화휴양지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용출구에 가서 닭알을 삶아보자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삼지연시건설현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신데 이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으로 먼길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러다가 점심식사마저 번지시면 어쩌랴 하는 생각에 초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허나 그이께서는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

으시고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인민들에게 온천문화휴양지를 잘 꾸려 안겨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또다시 용출구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동행한 일군이 닭알들을 온천물속에 조심히 담그는것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원수님께서는 문뜩 한 일군에게 닭알이 몇분이면 익을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실험해본 결과 17분이면 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면 20분만 삶아보자고 하시면서 자신의 손목시계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한초한초 천금같이 귀한 그이의 시간이 산골군의 이름없는 온천용출구앞에서 흘러갔다.

진정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는 시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은 없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용출구옆의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닭알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높뛰는데 원수님께서는 여기에 닭알삶는 터까지 만들어주어

야 할것 같다고, 닭알삶는 터까지 만들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천물의 온도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하시고 오늘은 무엇때문에 점심식사시간도 미루시며 닭알삶는 시간을 측정하고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어느덧 시간이 되여 닭알이 다 익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온천물에 삶은 닭알을 한알씩 맛보도록 하신 다음 닭알이 잘 익었는가 알아도 보시고 닭알을 담을수 있는 틀도 만들어줄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고서야 건설장을 떠나시였다.

하나를 주셔도 더 멋있게, 모자라거나 부족한것이 없는 완벽한것을 안겨주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속에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는 닭알삶는 장소가 아담하게 생겨나고 닭알을 담을수 있는 틀이며 조미료를 놓을수 있도록 벽장도 갖추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하고 극진한

보살피심속에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온천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멋쟁이휴양지에서 남부럽지 않은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게 되였다.

경치좋은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섰을 때 그이께서는 또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우리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문명세계를 안겨주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하늘길에 오르시여 건설장의 모습을 일일이 부감하시고 그길로 현장에 나오시여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를 상징할 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우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이 누리게 될 황홀한 문명이 펼쳐진 멋쟁이를 창조해야 하였기에 그이께서 바치시는 헌신에는 끝이 없었다.

친히 거리의 중심축도 새로 정해주시고 미래과학

자거리를 상징하는 주택도 건설하며 건물들의 형식을 지난 시기의 건설방식과는 완전히 새롭게 형성하도록 미처 생각이 가닿지 못한 설계가들의 안목을 거듭 틔워주시였다.

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려는 다심한 사랑에 떠받들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부모방, 부부방과 자식방, 부엌이 손색없이 꾸려지고 고급가구까지 빠짐없이 갖추어졌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정녕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무릉도원을 펼쳐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낳은 현대적인 거리, 인민의 꿈이 현실로 된 멋쟁이건축물이다.

멋쟁이들은 도시에서만 창조된것이 아니였다.

한해전까지만 해도 잡풀만 무성하던 중평의 허허벌판에 세계굴지의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치는 땅에 남새향기 더해주

고싶으신 그 마음 간절하시여 삼복철이 시작되던 때에 오시였던 그 걸음을 삼복철이 끝나가던 그 때에 다시 이으시며 고여오신 인민에 대한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과 정이 중평땅의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이다.

굳이 현지에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시련만 어이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험한 건설장에 령도의 자욱을 거듭하여 새기시였던가.

조업식에 참석하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래서였다.

어제는 평양시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멋쟁이농장도시로 꾸려주시고 오늘은 북방의 중평지구에 또 하나의 농장도시,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를 꾸려주시려 멀고 험한 길 가림없이 로고를 바치신것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멋쟁이창조물을 일떠세워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모두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불같은 열망의 분출이였다.

가까이에 있건 멀리에 있건 자식들을 돌보는 마음에는 자그마한 차이도 없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 나라 천만자식을 품어 안으시고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에는 수많은 멋쟁이창조물들이 일떠서 어딜 가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고있다.

건축물들만이 아니다.

인민들이 리용하는 대중소비품들과 의료설비들에도 우리 인민들을 아름답고 문명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어리여있다.

문명의 짙은 향기가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는 화장품에서도 풍기게 하시려 화장품생산단위들을 여러차례 찾으시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고 나라의 천만국사를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견본자료들까지 품들여 골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이 화장품공업에서 비약을 안아왔다.

몇해전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화장품분석소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봄향기》화장품과 그 나라의 화장품을 놓고 로화방지효과에 대한 대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화장품과 대비분석한 화장품으로 말하면 세계 65개 나라의 3 00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14년동안 연구개발한 제품으로서 여러건의 특허기술이 도입된 전형적인 로화방지화장품이였다. 이러한 화장품과의 질경쟁이라고 할수 있는 대비분석에서 우리 공화국의 화장품의 로화방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분석자료는 인터네트망상에까지 공개되여 세계각국의 화장품전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 인민에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멋쟁이

화장품을 안겨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로고가 《봄향기》화장품을 세계적인 명제품으로 발전시킨것이다.

오늘 온 나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보건산소공장.

이 공장도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그야말로 멋쟁이공장으로 일떠섰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보건부문에 의료용산소공급체계가 원만히 서있지 못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에 보건산소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여러곳을 거듭 밟아보시며 풍치좋고 공기도 청신한 명당자리에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공장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보건산소공장을 건설할바에는 똑바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산소공장을 위생성이 보장되는 선진적인 공장으로, 세계적수준의 공장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공장이 주변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멋들어지게 완공되였을 때 또다시 공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인민들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그토록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보건산소공장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사바늘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기울이도록 일깨워주신 대동강주사기공장,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이며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뻐하신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하여 각종 병원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거듭 강조하시는 명상품, 명제품의 기준은 철두철미 인민들의 요구와 기호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것을 만들어내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식료품들을 꽝꽝 생산해내고 있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이렇게 많은 식료품을 생산한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며 공장을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식료공장으로 더욱 훌륭하게 전변시켜주시였다.

지방의 자그마한 구두공장에 불과했던 원산구두공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공장으로, 로동자궁전으로 일신시켜주시고 공장을 세

번째로 찾아주셨던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들은 구두를 한켤레 만들어도 인민들에게 질좋은 구두를 신기겠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인민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눈여겨보기도 하고 자식에게 구두를 신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구두가 어떤가 하는것을 물어보기도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생산현장과 봉사단위들을 수없이 찾으시여 제품의 질도 가늠해보시고 상품들을 친히 사용해보시며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좋은 소비품들을 생산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이의 다심하고 정깊은 사랑과 은정속에 훌륭하고 멋진 명상품, 명제품들이 쏟아져나와 인민들을 아름답게 단장해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으로 만들도록 마음쓰시는 그이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이 있어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더욱 윤택해지고 있다.

인민의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멋쟁이 대성백화점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명상품들을 골라잡으며 사회주의문명의 진맛을 느낄수 있게 되였고 모든 면에서 손색없는 멋쟁이공장인 삼천메기공장과 평양메기공장, 신창양어장 등 굴지의 양어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서 우리 인민들은 고급어족들도 맛보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허나 사람들은 미처 다 알지 못한다.

오늘 자신들이 누리는 문명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시는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눈물겨운것인가를.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모든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인생의 락으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한 고생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고생을 묻어 인민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자신의 고생속에 묻으신 인민사랑의 씨앗을 헌신과 로고의 자양분으로 자래워 조국의 대

지에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의 바다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만복의 창조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의 진정한 어버이를 모신 우리 공화국의 인민들은 가까운 앞날에 더 멋진 문명을 받아안고 세세년년 복락만을 누리게 될것이다.

아이들에게 제일 훌륭한 멋쟁이를

이 세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분은 없다.

아이들이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시며 혁명하는 보람을 느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제일먼저 안아주시고 앵두볼도 다독여주시는분도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그토록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지니시고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 나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멋쟁이를 안겨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셨을 때였다.

국제친선소년회관극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관람홀 가운데통로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딴딴한 리놀리움을 깐 통로바닥은 얼핏 보기에는 별일없는것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면이 일매지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마치 양복을 빼입은 신사가 초신을 신고있는것처럼 조화롭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위환경과 불일치를 이룬 관람홀 가운데통로에 곤청색주단을 깔아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리고 관람석의자뒤판의 색갈도 관람홀바닥의 색갈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곤청색으로 다시 도색하도록 하시였다.

아이들에게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가기준은 이렇듯 높은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극장벽면의 색갈로부터 벽등에 이르기까지 작은 세부도 놓치지 않으시고 더욱 훌륭히 완성하도록 마음을 쓰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은 다 세계적수준이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것을 보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구경기장에 가시여서는 여름에 아이들이 밤에도 뽈을 찰수 있게 투광탑을 설치해주고 야외무대 맞은켠에 전광득점판도 만들어주라고 세심히 이르시였고 야외활쏘기장에 들리시여서는 기재들을 놓을수 있는 대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활쏘기하는것을 앉아서 볼수 있게 의자도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활쏘기장가까이에는 거울집도 지어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수족관주변의 바다물의 염도가 낮다는것을 아시고는 300㎙밖에서 염도가 보장되는 바다물을 끌어다 채워넣도록 하시였고 무난방온실을 실습기지로 꾸려주어 야영생들이 야영생활기간에 원예상식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필요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아이들이 리용하는 운동장에 투광탑과 전광득점판이 꼭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또 야영소에 거

울집이나 온실이 없다고 나무람할 사람도 없을것이다. 하지만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후대관을 지니셨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적타산이 아니라 교육교양에 더 큰 관심을 돌리시였고 사소한 문제에까지 그토록 마음쓰시였던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아주시면서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먼저 설치해주도록 하시고 그것을 보아주시려 몸소 준공식이 있은지 두달만에 또다시 야영소를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미끄럼대를 보시며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여서 더욱 마음에 든다고, 다음기 야영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리용하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으며 해수욕장을 찾으시여서는 야영생들이 해양체육도 할수 있게 돛배도 마련해주자고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였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을 다 안

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멋쟁이궁전으로 솟아오를수 있었다.

하기에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후대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사랑이 꽃향기되여 진하게 풍겨오는 야영소를 두고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네트홈페지는 이렇게 전하였다.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 같으면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로동자, 농민, 탄부, 어로공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 지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

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겁고 극진한 사랑은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학교와 과외교양기지들마다에도 속속들이 비쳐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시고 몸소 그곳을 찾으시여 남기신 사랑의 자욱들가운데에는 아이들에게 마련해주는 멋쟁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다.

궁전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소조실들을 돌아보시며 외장재를 바른 벽체를 손으로 쓸어보기도 하시고 건물의 높이도 가늠해보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그이께서 왜 그러시는지 영문을 몰라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것이 훌륭히 갖추어진 교육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으로 소조실들

의 층높이를 아이들의 체질과 궁전의 특성에 맞게 낮추도록 세심히 일깨워주시고 보온대책을 세워주어 한겨울에도 무용을 비롯한 모든 기량훈련을 아무런 불편없이 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따뜻이 가르치시였다.

수영관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적기준에 맞게 조약대의 너비를 늘이라고 일깨워주시였으며 조약대에서 지붕까지의 높이가 낮다는것을 즉석에서 헤아려보시고 바로잡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하여 조약대에서 지붕까지 늘어난 높이는 불과 수십㎝밖에 안되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모든것에는 티끌만 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되며 제일 훌륭한것이여야 한다는 그이의 하늘보다 높은 후대관이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짧은 기간에 멋쟁이궁전으로 훌륭하게 개건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바치신 헌신의 자욱은 위성소학교에도 새겨져있다.

주체103(2014)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실 때였다.

이날 제일먼저 은정구역 위성소학교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다가 문득 실내수영장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영장을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수조에 무넘이홈이 왜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뜻을 미처 알수 없었던 한 일군이 수조의 벽면들에 난 여러개의 구멍들을 가리켜드리며 물이 넘어나면 거기로 물이 빠지게 되여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더니 수조에 무넘이홈을 만들어놓는 리유를 설명해주시면서 바로잡도록 해주시였다.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리용하게 될 수영장이기에 경애하는 그이의 관심은 그리도

구체적인것이였다.

수영장의 물가열대책에 대하여서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내수영장을 여름에만 리용하게 할바에는 야외에 수영장을 꾸려놓는것이 낫다고 하시면서 실내수영장을 꾸릴바에는 사철 리용할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일정을 생각하며 2층에 꾸려진 실내롱구장은 설명만 해드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리용할 롱구장인데 올라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2층으로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학교학생들의 나이에 맞게 롱구대의 높이도 가늠해보시며 여기에는 어린이롱구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면서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외운동장을 바라보시며 무슨 잔디를 심었는가도 알아보시고 소학교에서 잔디를 관리

하기 힘들것이라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여놀게 하자면 인공잔디를 깔아주는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시며 참으로 일군들과 학교의 교원들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어린이들이 뛰여놀 운동장을 두고 마음쓰신 은정깊은 이야기는 창전지구에 새로 일떠선 경상유치원에도 새겨져있으니 훌륭하게 완공된 유치원을 처음으로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치원마당이 모두 피치로 포장되여있는것을 보시고 어린이들이 저렇게 바닥을 피치로 포장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면 상할수 있다고,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주든지 록지를 조성해주어 어린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는 그렇듯 다심하고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그이께서 새겨가신 사랑의 자욱은 조국땅 방방곡

곡 그 어디에나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상탁아소, 평양기초식품공장탁아소, 창전소학교,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 만경대소년단야영소,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삼지연학생소년궁전, 평양국제축구학교…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평양시 어느 구역, 어느 동에 있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애육원을 찾아주신 원수님의 모습을.

국제아동절이면 부모들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을 울타리너머로 부럽게 바라보던 바로 그 원아들이 원수님의 사랑속에 어떤 궁궐같은 새 집으로 요람을 옮겼는지를.

누구보다도 정을 그리워하는 부모없는 원아들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멋쟁이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세상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게 키돋움하며 솟아올랐다.

후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려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은 학생소년들이 입고있는 교복에도, 그들이 즐겨 리용하는 학용품마다에도 스며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그 어디를 가보아도 산뜻한 교복을 차려입고 갖가지 형식의 멋진 배낭식가방을 멘 학생들의 활기에 찬 모습이 눈에 뜨인다.

《소나무》책가방, 오늘 온 나라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즐겨 리용하는 크지 않은 그 가방에도 아이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손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을 들고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학생가방생산을 위한 실무적대책을 몸소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가방도안가들의 안목을 틔워주시기 위해 자신께서 연구하시던 100여페지나 되는 가방생산과 관련한 참

고자료들을 해당 부문 전문가들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자신께서 몸소 가방도안가, 제작자가 되시여 보아주신 가방도안만 해도 450여건이나 된다.

3개의 솔잎에 줄기를 형상한 《소나무》글자가 새겨진 책가방의 상표까지 공장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된 가방시제품을 보아주시며 자식들의 책가방을 두고 마음쓰는 어머니심정으로 가방의 형태를 다양하게 할데 대한 문제, 아이들이 가방에 책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는 경우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멜끈에 해면을 좀더 넣어줄데 대한 문제, 가방생산에 필요한 부속자재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뜻깊은 주체106(2017)년 새해 첫 현지지도로 가셔야 할 곳은 많았지만 제일먼저 가방공장을 찾으시고는 산처럼 쌓여있는 가방을 보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우리가 만든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학생들에게 멋진 교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또 그 얼마였던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훌륭한 교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교복의 색갈과 형태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도록 하시고 몸소 그 도안들과 견본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창작가들의 시야를 틔워주시려 세계의 이름난 대학들과 학교들의 학생교복을 찍은 사진자료들도 내려보내주시면서 그이께서 세부에 이르기까지 지도해주신 교복도안과 견본들은 헤아릴수 없다.

소학교, 중학교 남학생들의 교복은 목깃을 닫긴깃으로 하되 각이 나게 하지 말고 약간 곡선을 주면서도 좀 크게 하며 소학교 녀학생교복색갈도 중학교 녀학생교복과 같이 웃옷은 진자주색으로 하고 치마는 진회색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소학교 녀학생교복치마멜띠를 곱하기표식처럼 어기게 하여놓으니 보기가 좋지 않다고 그리도 세심히 품들여 완

성해주신 학생들의 교복도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그것은 단순한 종이장우의 그림이나 하나의 견본이 아니라 새 교복을 받아안고 좋아할 학생들과 부모들의 얼굴이였고 더욱 환해질 나라의 모습, 더더욱 멋있어질 앞날의 조국의 모습이였다.

어찌 교복과 학용품뿐이랴. 어린이들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라고 하시며 모든 제품을 더 맛있게 만들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평양아동백화점을 돌아보시면서는 백화점의 매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꾸리도록 일깨워주시고 수많은 실내놀이터용기재들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후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고 온넋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로고.

정녕 그것은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아갈 앞날의

주인공들에 대한 자애로운 어버이의 용암처럼 뜨거운 사랑이였고 헌신이였다.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끊임없이 가고가시는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그 길우에 우리 꽃봉오리들을 위한 수많은 멋쟁이들이 태여나 아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고있다.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일을 혁명의 전진을 추동하고 나라의 국력을 다지기 위한 천만가지 국사들가운데서 맨 앞자리에 놓으시고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월하고 멋진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세상에 부러움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공화국의 후대들, 멋쟁이들이 떠메고나갈 내 조국의 앞날은 또 그 얼마나 멋있을것인가.

자력자강의 창조물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멋쟁이를 좋아한다.

하지만 멋쟁이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각이하다.

번쩍거리고 울긋불긋하며 화려한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잖고 은근하면서도 세련된것을 멋쟁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다면 진정으로 멋진것, 훌륭한것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처음으로 개발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족하게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창조물이 제일 훌륭하고 소중한것인가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주체104(2015)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로동계급에게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며 개발과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불타는 심장마다에 굳게 간직한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해 10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 차체의 벽면과 바닥을 쓸어도 보시고 지하전동차에 오르시여 의자에도 앉아보시며 더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결함들은 있지만 괜찮다고, 지하전동차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기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깊은 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미소속에 보아주시며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타고 몸소 시운전을 진행하시며 오늘 우리가 자체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타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씽씽 달리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처음으로 만들다보니 당시 지하전동차에는 일부 부족점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 식으로 만든 지하전동차, 자력갱생의 자랑찬 창조물이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시며 미남자라고 정답게 불러주시였던것이다.

바로 그것이였다.

남의것이 아닌 제것, 남의 도움이 아닌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만든 우리의것 바로 이것이 원수님께서 제일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창조물인것이다.

주체107(2018)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 시운전운행길에 몸소 오르시여 하신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그이께서 어떤 때 제일 기뻐하시며 만족해하시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여서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긍지스럽고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의 힘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결과물들을 마주할 때가 제일 기쁘고 더없이 만족하다고 하시며 깊은 밤 오랜 시간 시운전을 지도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더 훌륭히 완성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궤도전차도 생산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라고,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높이 평가하신 새형의 80hp뜨락또르는 또 얼마나 매력적인가.

수천종에 1만여개나 되는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만든 우리의 미남자뜨락또르.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두달동안에 설계가들이 그린 도면만 해도 수천여매나 되였으니 뜨락또르로 완성되기까지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계급이 바친 값비싼 땀과 지새운 낮과 밤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실패한적은 많았어도 물러서자고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들은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와 땀으로 경제강국의 활로를 열어나가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80hp뜨락또르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창

조형으로 만들어낸 뜨락또르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남자이라고 사랑을 담아 정답게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잘 생겼다고 평가해주신 미남자는 평양곡산공장에도 있다.

평양곡산공장에서는 공장로동계급과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수십종에 백수십여대에 달하는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설치하면서도 원가를 대폭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105(2016)년 6월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평양곡산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본보기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표준으로 내세울만 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하게 차려놓

았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다 미남자들처럼 잘 생겼다고 평가해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진가를 실천으로, 생활속에서 체득시켜주시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어낸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현란하고 번쩍거리지 않아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것으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신다.

바로 그래서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다가도 바쁜걸음 멈추고 들리시여 로고를 바치신 동화세계의 희한한 궁전들도, 깊은 밤 이른새벽 찾고 또 찾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신 인민을 위한 세계적인 건축물들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창조물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모든것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멋쟁이로 내세워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멋쟁이공장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운반, 보관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 무인화되고 생산현장이 무균화, 무진화되였으며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량화, 최적화할수 있게 다차원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은 이 공장은 그야말로 멋쟁이이다.

건물과 설비가 현대적이여서만 멋쟁이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첨단설비들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것이여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만족해하시며 멋쟁이공장이라고 불러주신것 아니랴.

주체105(2016)년 6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아주신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설비를 자체로 만들어낸데 대하여 그처럼 만족해하시며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치하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자체로 건설한 종합편의시설도 돌아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이 공장은 내놓고 자랑할만 하다고 그처럼 기뻐하시였다.

세상을 놀래우며 일떠선 려명거리도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요람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으로 이루어낸 멋쟁이거리이다.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정치적계기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는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고 려명거리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

설자들은 자력자강의 거대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멋쟁이거리를 희한하게 일떠세웠다.

거리의 설계로부터 시공은 물론이고 매 건물마다에 적용된 첨단록색건축기술과 제품들도 자체의 과학기술력량과 건설력량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의 결실이고 건설에 리용된 세멘트와 강재, 유리와 목재, 타일, 무늬고운 가구들과 출입문들, 문손잡이며 벽지, 칠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자재들도 우리의 로동계급의 헌신적투쟁과 증산의 귀중한 결과물들이다.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기발한 착상이 평범한 로동자에 의하여 창안도입되고 통방식휘틀조립공법을 비롯한 새로운 건설공법과 철근구부림기재, 썰매형철근운반기, 원통식모래치는 기재 등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제작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설계가들은 드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정력적인 사색을 기울여 특색있는 설계들을 최단기간내에 완성

하여 시공에 앞세웠다.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도 피타는 노력을 바쳐 선진적인 록색건축기술개발과 장치제작 및 설치를 비롯하여 우리 식의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높은 수준에서 손색없이 해결하였다.

참으로 려명거리는 세상에 내놓고 당당히 자랑할만 한 현대건축의 표준, 본보기거리인 동시에 사면팔방에서 조여드는 적대세력들의 류례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건설한 또 하나의 자력갱생의 산물이다.

아니, 려명거리만이 아닌 이 땅에 일떠서는 모든 거리, 자력으로 창조되는 모든 건축물들,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원료에 의거하여 세계를 굽어보며 이룩한 창조물들이야말로 조선의 멋, 조선의 슬기, 조선의 식이 살아숨쉬는 자력자강의 숨결이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진짜멋쟁이들

이다.

난관을 박차고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이 현실은 자주를 신념의 억센 기둥으로 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로동계급에게 조성된 정세와 혁명이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문제들을 툭 터놓고 이야기해주시면서 영웅적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자력갱생창조대전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그이의 헌신적인 령도가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의 신화를 창조하였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쟁이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웠던것이다.

만방에 빛을 뿌리는 조선의 존엄과 위용, 시련속에서 끝없이 늘어나는 문명의 창조물들을 보며 세계는 그 모든 멋진 창조물들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경탄,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인 《빠뜨리오띄 모스

크바》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계시는것은 그이의 출중한 령도력과 비상한 전개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목때문이다, 그처럼 멋진분이시니 조선도 인류가 경탄하는 별세상으로 전변되고있다, 멋진 정치, 멋진 령도자에 대한 매혹과 찬탄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렇다. 세인이 경탄하는 절세의 위인의 멋진 정치를 받는 인민이 어찌 세상이 부러워하는 멋진 락원을 일떠세우지 못하랴.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더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고 자력갱생,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기세충천, 용기백배하여 더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의 더 멋진 래일을 향하여!

멋 쟁 이

집 필 림경호

장 정 리성일

교 정 리명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9(2020)년 6월 17일

발 행 주체109(2020)년 6월 19일

ㄱ—1476ㄷ